

#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께

안녕하세요. 2024년 첫 선교 보고로 인사 드립니다. 2024년의 첫 사역 시작을 브라질에서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든 JSB Mission Fund Team 가정 위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에 브라질에 잘 도착했고 브라질 농아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뽀르뚜 알레그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었는데 이 곳 농아인들이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부탁을 여러 번 하였고 이 곳 농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뽀르뚜 알레그리에 방문하여 그 곳의 농아인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으며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45분까지는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히 평일에는 농아인들을 만나 상담해 주고 영상통화를 통해 수시로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농아인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농아인들이 복음에 무지하고 성경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도 많이 없고 제한되고 고립된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특히 농아인들은 사회에서 직장 생활 혹은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인과 소통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가정내에서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교회에 나오면 같은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시외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농아인으로 혼자 나와 사역을 하고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특히 남미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외국인이 종종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하기에 체류하는 동안 긴장이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시외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4. 농아인이 성경을 충분히 깨닫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 쁘르뚜 알레그리 선교활동



#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 쁘르뚜 알레그리 선교활동

